

빌리다 vs 빌려주다

빌려 쓰다, (돈을 내고) 빌리다 · 빌려주다

빌리다 는 무언가를 잠시 받아서 쓰는 것입니다. 여기에 주는 동사 주다 를 붙이면 빌려주다가 됩니다. 무언가를 잠시 남에게 내주는 것입니다.

■ 한눈에 비교

단어	핵심 의미	뉘앙스	자주 쓰는 형태
빌리다	빌려 쓰다; (돈을 내고) 빌리다	내가 받습니다. 빌려준 사람에게는 에서/에게서/한테(서)를 씁니다.	N에서/에게서 N을/를 빌리다 책을 빌리다 / 빌려도 돼요?
빌려주다	빌려주다	내가 줍니다. 빌리다 + -아/어 주다; 겸양 표현은 빌려 드리다.	N에게 N을/를 빌려주다 빌려주세요 / 빌려 드릴게요

■ 차이점

1. 누가 받느냐에 따라 동사가 정해집니다. 친구가 주고 내가 받으면: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(친구에게 돈을 빌렸어요). 내가 주고 친구가 받으면: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(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어요). 한테 는 어느 쪽에도 쓸 수 있으므로 동사가 뜻을 결정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.

2. ‘빌려주세요’ vs ‘빌려도 돼요?’ 두 부탁 모두 가능하지만 동사가 다릅니다: 펜 좀 빌려주세요 (펜 좀 빌려주세요) ○, 펜 좀 빌려도 돼요? (펜 좀 빌려도 돼요?) ○. 둘을 섞으면 틀립니다: 펜 좀 빌리세요 ×. ‘빌려주다’를 써야 할 자리에 ‘빌리다’를 쓰는 실수에 주의하세요.

3. 빌리다는 돈을 내고 빌리는 것도 포함합니다. 돈을 내고 잠시 쓰는 것도 빌리다입니다. 빌리다: 자전거를 빌렸어요 (자전거를 빌렸어요), 한복을 빌려 입었어요 (한복을 빌려서 입었어요). 따로 다른 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

문장	빌리다	빌려주다
도서관에서 책을 세 권 ____.	◎	×
우산이 없는 친구에게 제 우산을 ____.	×	◎
은행에서 돈을 ____ 집을 샀어요.	◎	×
이 책 다 읽으면 저한테도 좀 ____.	×	◎
제주도에서는 차를 ____ 여행하는 사람이 많아요.	◎	×

◎ 자연스러움 ○ 가능 △ 어색함 × 틀림

■ 한 걸음 더

빌려주다는 -아/어 주세요의 보조 동사 주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주는 동사와 똑같이 활용합니다: 빌려 드릴게요 (윗사람에게). 빌려주는 상대방에게는 에게/한테를 쓰고, 빌리는 상대방에게는 다음을 씁니다: 에게서/한테서.

■ 연습 문제

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세요: 빌리다, 빌려주다

1.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두 권 ____.

정답 빌렸어요 — 책을 잠시 받아서 쓴 것이므로 빌리다.

2. 제 차를 쓰세요. 주말 동안 ____.

정답 빌려 드릴게요 — 차를 쓰라고 내주는 것이므로 빌려주다 (겸양 표현 빌려 드리다).

3. 동생이 돈이 없다고 해서 제가 만 원을 ____.

정답 빌려줬어요 — 내가 돈을 준 것이므로 빌려주다.

4. 펜을 안 가져왔어요. 펜 좀 ____.

정답 빌려주세요 — 상대방에게 빌려 달라고 부탁할 때: 빌려주세요.

5. 급해서 옆 사람에게서 휴대폰을 ____ 전화를 걸었어요.

정답 빌려서 — 에게서는 받은 곳을 나타내므로 빌린 것입니다.

■ 예문

1 친구한테서 노트북을 잠깐 빌렸어요.

2 공원 앞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한 시간 탔어요.

3 지갑을 안 가져왔는데 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?

4 동생이 제 옷을 자꾸 빌려 입어요.

5 선생님, 제 사전을 빌려 드릴까요?

6 빌린 책은 다음 주까지 돌려줘야 해요.

■ 자주 하는 실수

× 친구가 돈이 없어서 제가 5만 원을 빌렸어요.

○ 친구가 돈이 없어서 제가 5만 원을 빌려줬어요.

돈을 주는 쪽이 나라면 빌리다가 아니라 빌려주다입니다.

× 펜 좀 빌리세요.

○ 펜 좀 빌려주세요.

‘빌려주세요’는 상대방에게 잠시 내달라는 부탁이므로 빌려주세요가 필요합니다. 빌리세요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빌리라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.

× 친구한테 책을 빌려 받았어요.

○ 친구한테 책을 빌렸어요.

무언가를 빌려서 받는 것은 그냥 빌리다입니다. 빌려 받다는 자연스러운 한국어 가 아닙니다.